

第4編 군수기(郡守期)



坡州郡管內圖(1980年代)

第1章 제국 주의(帝國主義)의 침략(侵略)

1. 개요(概要)

태종 13년 행정 제도 개혁으로 8도제와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썼음은 기술향 바이나 이 제도는 큰 변동 없이 고종대에 이르러 13도제와 군면(郡面)제로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고종 32년(1895) 갑오 경장(甲午庚張)이다. 즉 모든 부(府)와 현(縣)이 군(郡)으로 개칭됨으로써 본군에 있어서도 파주부가 파주군으로, 적성현이 적성군으로, 교하현이 교하군으로 각각 명칭이 달라지고 행정 기구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군은 군으로서 통치되었기에 군수기(郡守期)라 하였다. 군수기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국 주의(帝國主義)의 침략기——고종 32년~융희 4년(1895~1910)

② 민족 운동(民族運動)의 발전기——1910년~1945년

제국 주의의 침략기는 일제의 침략으로 차츰 국력(國力)이 쇠퇴되어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25년간을 말한다.

민족 운동의 발전기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이 민족의 통치를 받던 시기이기는 하나 일제에 맞서 민족 독립 운동을 한층 발전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2. 일제(日帝)의 침략기(侵略期)

○ 한말(韓末)의 내외 정세

영정(英正) 시대를 지나면 세도 정치(勢道政治)로 순종, 현종, 철종 등 어린 임금들 내세우고 정권을 통단하여 국가가 점점 쇠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잠깐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소위 문예 부흥(文藝復興)이 우리의 조선조 초기에 해당되고 산업 혁명(產業革命)이 영정 시대에 해당된다. 산업 혁명으로 서구문명은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여 기계혁명, 교통혁명, 정치혁명, 군사혁명 등 현대 사회로 발달음을 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사회는 구태의연한 봉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정 시대에 겨우 대두된 실학(實學)도 큰 빛을 맺지 못하고 순, 현, 철종의 세도 정치와 고종 때의 쇠국 주의는 세계 정세에 맹목이 되어 발전해 가는 세계 조류에 우리 나라만이 퇴보하는 감마저 주었던 것이다.

과연 전 세계 열강들은 전술한 산업 혁명, 기계 혁명을 이루고 국력의 증강으로 제국 주의 화하여 약소 민족의 침략에 나섰다. 포르투갈, 화란을 선두로 영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가 뒤따르고 미국은 늦게 참여하였다. 일본도 재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인접국인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침략의 검은 손을 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열강의 각축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한말에 이르러 철저한 쇄국 주의 정책으로 세계 추세에 눈을 가리고 구태의연한 봉건 사회를 탈피 못하고 있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더듬어 보기로 한다.

임진, 병자의 양대 국난을 겪은 후에도 사색 당쟁(四色黨爭)은 여전하였고 여기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하여 삼정(三政)은 문란되고 급기야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났다. 이 때 혜성처럼 나타난 대원군이 대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민비(閔妃)와의 알력으로 정계가 혼란하여졌다. 이 틈을 타고 고종 1년 2월과 동 2년 9월에 러시아가 남하하여 통상(通商)을 요청하였다. 한편 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여 병인 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났다. 그러나 불군(佛軍)을 격퇴시키므로써 아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쇄국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 고종 8년에는 제너럴 쉬어맨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로 침범하였다가 물러간 사건도 일어났다.

고종 10년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親政)이 실시되자 민비가 정치에 간여하게 되어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일본의 운양호(雲揚號) 사건이 일어나고 병자 수호 조약(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되어 부득이 개국(開國)하게 되니 러시아, 미국, 불란서 등과도 차례로 통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세력 팽창이 원인이 되어 임오 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청일(淸日)의 세력 다툼 끝에 계물포 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어 국내에는 개화파(開化派)가 대두되어 갑신 정변(甲申政變)을 초래하고 또 이로 인하여 청일 전쟁이 발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독무대를 막기 위하여 삼국 간섭(三國干涉)이 발생되고 결국에 가서 러시아의 남하로 노일 전쟁이 발생하였다. 노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자 열강의 세력이 완전히 구축되어 한국은 일본의 침략 독무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 나라의 운명은 풍전 등화격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고종 광무 9년(1905) 을사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므로써 국권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망국의 날이 닥아오고 있었다.

을사보호조약이 발표되자 종로 상인들은 철시하고 각 학교는 폐문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통곡하였으며 황성 신문(皇城新聞)은 그 사설에 『是日也 放聲大哭』이란 논설을 실었다. 이 완용(李完用)의 집에는 불이 나고 이 근택(李根澤)에게는 자객이 뒤따랐다. 민 영환(閔泳煥), 조 병세(趙秉世), 홍 만식(洪萬植), 이 상철(李相哲) 등이 자결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병에 체포되고 전국에 의병(義兵)이 봉기하였다. 당시의 의병 활동을 「매천 야록」(梅泉野錄), 「의병대장 병부」(義兵大將兵簿) 등을 참조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3. 의병(義兵)의 봉기(蜂起)

당시의 의병 활동을 3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 1기는 고종 32년(1895) 민비의 시해, 단발령(斷髮令)에 대항한 것이고, 제 2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고, 제 3기는 고종의 양위(讓位)와 군대 해산에 반발한 것이다. 특히 제 3기에 이르러 군대 해산으로 해산된 군인이 의병으로 가담되어 신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활약이 치열하였다. 일본이 의병을 진압하는데 5년이 소요된 것이다. 본군의 의병은 제 3기에서 있었다.

그러면 제 3기의 활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구(李載九)의 관동군(關東軍) 6천명, 이강년(李康年)의 호서군(湖西軍) 5백명, 허 위(許爲)의 경기군 2천명, 권 중식(權重植)의 해서군(海西軍) 5백명, 방 인관(方仁寬)의 관서군(關西軍) 1백명, 정 봉준(鄭鳳俊)의 관북군(關北軍) 1백명, 문태수(文泰洙)의 호남군(湖南軍) 1백명이 1905년 12월 경기도 양주를 근거

한말 의병 운동의 통계표

기	간	전 투 회 수	전 투 의 병 수
1907.	8 ~ 12월	323 회	44, 116 인
1908.	1 ~ 6	795	48, 079
	7 ~ 12	654	21, 753
1909.	1 ~ 6	593	18, 248
	7 ~ 12	305	6, 535
1910.	1 ~ 6	105	1, 386
	7 ~ 12	42	505
1911.	1 ~ 6	33	216

義兵戰鬪經過의 概要一覽表

年	月 別	義兵이 占據한 主要地方	義兵의 首領과 그 兵力	討伐次 派遣된 官軍部隊	戰鬪結果의 概要
1907	九月	京畿道 楊州·坡州·積城附近	曹仁煥·權俊·王會鍾 金濠默 以下 約千名	日軍第五十一聯隊 田邊大尉 引率의 步兵一中隊와 半小隊 山砲兵 一小隊, 工兵 一分隊 步兵第五十二聯隊의 一中隊	義兵若干이 損傷을 입고 他方面으로 後退하였음. 再燃할 氣勢
	十月	京畿道 積城附近	王會鍾 以下 約四百名	日軍第五十聯隊 第八中隊	義兵의 本部 深源寺가 燒却當함
1908	自 一月 至 三月	京畿道 臨津江流域一帶	許爲 以下 約四百名	日軍第四十七聯隊第五中隊, 其他十數個所에 配置된 各守備隊	
	自 四月 至 十二月	京畿道 臨津江流域 帶·江華島 一圓	許爲·金秀民 以下 約 一五百名	十餘個所에 配置된 各守備隊	許爲以下 被逮

註 1. 本表는 朝鮮駐劄軍 司令部編纂 「朝鮮暴徒伐誌」—大正 2年(즉 1913年) 3月 發行本 10面에 添付된 「暴徒鎮壓經過 / 概要一覽表」에 의한 바, 原本에 「暴徒」라 한 것을 「義兵」으로, 「明治」年代를 西紀로, 其他 用語를 고친데 不 過한다.

2. 本表로 볼 때 義兵이 가장 蜂起한 것은 西紀 1907年(光武 11年) 7月에 高宗皇帝가 讓位하게 되고 同 3月에 軍 隊解散이 斷行된 以後부터이니 解散當한 軍隊가 義兵의 主力으로 轉向한 것임에 틀림없다.

3. 庚戌合邦 다음해인 1911年만 해도 黃海道方面의 義兵을 討伐하는데 日軍 旅團兵力이 出動되었으니 그 熾烈한 모습을 넉넉히 짐작케 한다.

지로 대집단을 이루고 전군을 24진으로 편성, 총대장에 이 인영(李麟榮), 군사장에 허 위를 내세우고 서울 탈환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훈련의 부족과 무기의 부족으로 동대문 밖에서 패전하고 그 후로는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때 상황은 표『의병 전투 경과의 개요 일람표』에 기록되었다. 또 당시의 전투 회수와 전투참가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4. 본군의 의병 활동

본군에서 봉기한 의병 활동은 1907년 9월에서 1908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4차례가 있었다.

① 1907년 9월에 파주, 적성방면에서 조 인환(曹仁煥), 권 준(權俊), 왕 회록(王會錄), 김 진묵(金溱默) 등 약 1,000명이 봉기하였다. 일군 제51연대 전변(田邊) 대위가 인솔한 보병 1중대와 산포병(山砲兵) 1소대, 공병 1분대, 보병 52연대 1중대등 병력의 공격으로 의병이 약간의 손해를 입고 다른 지방으로 후퇴하였으나 재차 봉기할 기세였다.

② 1907년 10월 왕 회록의 4백명이 적성 부근에서 봉기하였으나 일군 제50연대 제 8중대의 공격으로 의병 본부인 심원사(深源寺)가 소각되었다.

③ 1908년 1월 임진강 유역 일대에서 허 위등 4백명이 봉기하여 일군의 황주, 해주, 서흥 등지의 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1908년까지 계속 활약하였다.

④ 1908년 4월 허 위, 김 수민(金秀民) 등 5백명이 전년에서부터 계속 임진강 유역 일대에서 일군과 싸웠다. 그러나 허 위등이 체포되었다.

이상 본군에서 활동한 의병중 특히 허 위는 임진강을 본거지로 2년간을 활동하였으며 허 위의 휘하에 본군 출신 의병으로 정 용대(鄭用大), 경 현수(慶賢秀) 등이 활동하였다.

○ 허 위(許篤)

1985(고종 22)—1907(융희 1)

호는 왕산(旺山)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일찍부터 병법에 능했다. 1897년 의병장이 되어 선산, 금산 등지에서 싸우다가 왕의 밀서(密書)로 중지하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경기도 지방에서 활동하며 군사장(軍師長)이 되어 서울을 함락하고 통감부(統監府)를 격파하려다가 동대문 밖에서 패하고 다음 해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처형되었다. 1962년 대한 민국의 건국 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중장(重章)을 받았다.

상기한 바 허 위는 파주 인물은 아니나 임진강유역 파주에서 활동하였고 그의 감화를 받아 파주 사람이 많이 의병에 참가하였기에 이에 소개한다.

○ 정 용대(鄭用大)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남경신리

주소 : 본적과 같음

운동명 : 의병

포상 훈격 : 국민장(國民章)

공적 사항

○ 1908년 2월 을사 조약(乙巳條約)에 대한 의분으로 경기 지방에서 의거, 의병을 수백명 모집, 그의 장이 되어 적성, 교하, 풍덕, 김포, 통진 등지에서 병력의 지휘하여 동년 2월 27일~3월 2일 일본 헌병대 및 경찰대와 교전한 사실이 있고, 계속 적성, 김포 등에서 군량미 및 금품을 징발 전쟁 준비를 하다가 1909년 10월 28일 체포되어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사형이 언도되어 항소(抗訴)하였으나 원판결 확정으로 형이 집행되어 1910년 순국하였다.

<독립 운동사 자료집 별집 98판결문>

○ 경 현수(慶賢秀)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주소 : 본적과 같음

운동명 : 의병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

공적 사항

○ 1896년 음 3월 10일 허 위(許蕤)의 지시에 따라 청국 혁명단(淸國革命團)에 구원을 청하는 밀서를 지참 청국에 전달하였음.

<독립 운동사 자료집 제 2집 p.242>

○ 1905년 12월 평북 용천(龍川)을 중심으로 김 덕원(金德元), 김 두섭(金斗燮)과 같이 의거하여 이 봉학(李鳳鶴), 이 인순(李麟淳), 이 상린(李相麟), 유 동희(柳東熙), 이 극(李戡), 현 학표(玄鶴表), 김 일제(金一濟), 진 창렬(陳昌烈), 이 범석(李範錫), 강 윤희(姜允熙) 등 유림생(儒林生)과 같이 궁문(宮門) 밖에 가서 글을 올려 일인(日人)의 횡포와 5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다 연행됨.

<독립 운동사 1권 p.342, 170, 554>

○ 권 중삼(權重三)

본적 : 적성면 자장리

운동명 : 의병

활동 사항 : 28세 때 응희 2년(1908) 9월 22일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피검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근거 : 「한국 독립운사」 별책 1권 19면(파주 3·1 운동 기념 사적지에서)

○ 백 영현(白永鉉)

본적 : 천현면 갈곡리

운동명 : 의병

활동 사항 : 의병 활동을 하다가 징역 5년에 처하다. 언도일은 응희 3년(1909)8월 20일, 당년 27세

근거 : 「한국 독립운동사」 별책 1권 112면(파주 3·1 운동기념 사적지에서)

第2章 민족 운동의 발전(發展)

1. 일제(日帝)의 식민 정책(植民政策)

1910년 합병 조약에 조인한 일본은 9월 1일에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고종을 이태왕(李太王)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개칭하고 76명의 친일 분자에게 작위를 주었다.

통감부(統監府)를 총독부(總督府)로 개칭하고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시작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연한 지위를 가지고 모든 관리의 인사권, 군의 통솔권, 제령 입법권(制令立法權), 판검사의 임명권 등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한손에 잡아쥐고 행사하였다. 총독부 관원 총원이 약 1,000명인데 그 중 40명의 한국인은 말단 직원으로 배정되었을 뿐이다.

지방 행정은 13도(道), 12부(府), 319군(郡), 4,338면(面)으로 나누어 도장관(道長官), 부윤(府尹), 군수(郡守), 면장(面長)을 배치하였다.

치안은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경무 총감부(警務總監部)에서 조선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초대 총독 테라우찌(寺內政毅)는 막강한 권력으로 무단 정치를 감행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모든 단체의 해산은 물론 일진회(一進會) 등도 해산시켰으며 모든 신문을 폐간하고 어용신문인 경성 일보(京城日報), 매일 신보(每日申報)만 존속케 하였다. 각급 학교에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국어라 하여 강제 상용케 하였다. 또 한국 역사와 한국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수십만권의 서적을 압수 소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말과 우리 글자를 없앴던 것이다.

2. 초기(初期)의 저항운동(抵抗運動)

○ 반 학영(潘學榮)의 자결

이 나라에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함은 이민족의 침략은 받았으나 이 민족의 침략으로 국권(國權)을 상실한 적은 없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치욕과 수치감에 견딜 수 없어 상복을 입고



潘學榮墓

한 평생을 보냈다. 좀 더 강개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다. 이러한 순국 열사와 애국 지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본군에서도 그러한 순국 열사가 있었으니 교하에 거주하던 반 학영(潘學榮) 지사였다. 반 학영 지사는 본래 내시(內侍)였으나 한일 합방의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한 나머지 삽교(插橋) 시장에서 칼을 입에 물고 자결하였다. 그가 죽은지 20여년이 지난 후 그의 동료들이 그의 묘소에 비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으니 그 비에 자세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묘소는 잡초에 묻혀 분묘가 보이지 않고 묘비는 나무에 가려졌다. 묘비가 없었더라면 묘소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독립 유공자로서의 열사의 묘소가 황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승록대부 내시부사 반공 묘표(崇祿大夫內侍府事潘公墓表)

경술년 가을 8월 2일 대한국 승록 대부(崇祿大夫)① 지 내시부사(知內侍府事)②인 반 학영 공이 충성스럽게 죽으니 그때에 나이가 70이다. 파주의 신촌(新村)을 택하여 곤좌(坤坐)에 장사하였다. 이제 20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의 덕을 추모하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옛 동지들이 그의 큰 절개가 어둠에 묻혀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돈을 모아 돌에 그의 사적을 기록한다. 나와 공은 같은 조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지가 서로 달라 서로 알지 못하였다. 광무 7년(1903) 효정 왕후(孝定皇后)의 국장 때 공은 도설리(都薛里)③가 되고 나는 제관(祭官)이 되어 같이 모든 것을 주선하는 분주한 부서를 맞게 되자 비로소 서로 알게 된 지 3년이 되었다. 그의 죽음이 충성한 것임을 듣고 슬프다. 아픔이 오래 되도록 잊혀지지 아니한다. 묘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찌 묵묵히 참고 있으랴.

공은 영금인(永今人) 한림 학사(翰林學士) 반 처(潘胥)의 후손이다. 철종 8년 정사년(1857) 처음으로 입사(入仕)하여 벼슬이 일품(一品)에 이르렀다. 대개 그 사람됨이 자서하고, 신중하여 철중, 고종 양대에 걸쳐 항시 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면서 일찌기 사소한 잘못도 없었다. 또 경계(耿介)④하고 정직하여 홍수(紅袖)⑤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권문(權門)에

註① 승록 대부(崇祿大夫) : 종일품(從一品)의 문무관의 품계(品階)

② 지 내시부사(知內侍府事) : 조선조 초기의 내시부사(內侍府事)의 한 벼슬, 동판내시사(同判內侍事)의 다음 벼슬

③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내시들의 우두머리

④ 경계(耿介) : 대세에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굳굳히 내세움

⑤ 홍수(紅袖) : 홍수황문(紅袖黃門) 홍수(紅袖)는 궁녀(宮女), 황문(黃門)은 내시(內侍)

⑥ 판방(板蕩) : 시전대야(詩傳大雅)의 관(板)과 탕(蕩)의 두편(篇) 모두 어지러운 정사를 읊은 데서 나온 것으로 정치를 잘못하여 어지러진 나라의 형편

드나들지 아니하며 만약 임금의 총애를 믿고 제 뜻을 허트리는 자가 있으면 왕래를 끊고 말았다. 무릇 모든 이익을 취하는 일에는 한번도 마음을 쓴 바 없고 다만 박봉으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므로 곤궁함을 면치 못하였으나 항상 편안하였다. 한평생을 학문의 아론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몇몇한 마음에 맞게 실행하였고, 또 행동의 돈독함이 제나라, 노나라의 대선비보다 못지 아니하였다.

한번 국론이 갈라지자 왕실은 다난해지고 내우 외환으로 국가 대세가 판탕(板蕩)⑦하여 지자 공의 걱정은 불꽃같이 연연한 마음으로 국가를 보살폈다. 그러나 공이 벼슬을 구만두고 파주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국가는 망하여 봉작을 받고 입연(入筵)⑧을 선포하였다. 공은 비분 격앙하여 밤낮으로 통곡하고 음식을 끊기를 여러 날을 하다가 마침내 유서를 작성하여 충성스런 뜻을 밝히고 삼교(揶橋)시장에 나아가 드디어 길가에서 칼을 물고 엎어져서 그 충성된 뜻을 다하니 아— 장렬하다. 보통 사람의 인정은 삶을 즐기지 아니함이 없고 죽음을 슬퍼한다. 죽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태산보다 중한 것인즉, 어찌 공 같은 분을 이르는 것이 아니리오.

나무가 푸른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음이요. 신하의 큰 문덕이 되어 밝고 맑게 일월보다 빛나나니 이 죽히 슬프지 않으리오. 회고하여 볼 때 전연(渙澗)⑨하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 말라서 살이 빠진 목과 초라한 기름기 없는 누런 얼굴로 목석같이 살아가는 자. 죽히 즐겁다고 하리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니 나는 오히려 죽은 목숨이요. 공은 오히려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감히 공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슬퍼하노라. 배위(配位)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요. 자손들은 공을 뜻을 계승하였다.

명(銘)⑩

파주의 산과 산
충신의 유연(攸然)한 집
비둘은 달을 망정
그 이름 영원하리.

승록 대부 지 내시부사 승전색(承傳色)⑪ 반 학영 공의 묘
정경 부인(貞敬夫人)⑫ 전주 이씨 부좌(附左)⑬

발기인(發起人)

통훈 대부(通訓大夫)⑭ 정 기동(鄭基東)

註⑦ 입연(入筵): 연(筵)은 광중(墓), 마지막, 죽임

⑧ 전연(渙澗): 때 묻는 것

⑨ 명(銘): 한문체(漢文體)의 하나, 운자(韻字)를 넣어 녀자(四字)를 한쪽으로 구(句)를 이루어 서술하는데 주로 자기자신을 경계하거나 남의 업적 또는 사물의 내력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금석(金石), 기물(器物), 비석(碑石) 등에 세졌다.

⑩ 승전색(承傳色):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내시, 승전 내시, 승전빛

⑪ 정경 부인(貞敬夫人): 정일품(正一品)과 종일품(從一品)의 문무관(文武官)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封爵)

⑫ 부좌(附左): 부부를 합장할 때 아내를 남편의 왼편에 묻는다.

⑬ 통훈 대부(通訓大夫): 정삼품(正三品)의 당하관(堂下官)

통정 대부(通政大夫)⑭ 최 봉화(崔鳳和)
 통훈 대부(通訓大夫) 하 용화(河龍和)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 장현(李章炫)
 // 이 시영(李時英)

찬조인(贊助人)

승록 대부(崇祿大夫) 양 설기(梁高基)
 // 김 세욱(金世旭)
 // 라 세환(羅世煥)
 // 홍 택주(洪宅柱)
 // 양 준상(梁濬商)
 가의 대부(嘉義大夫)⑮ 최 석두(崔錫斗)
 가선 대부(嘉善大夫)⑯ 이 용환(李用煥)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 병직(李秉直)

崇祿大夫內侍府事 潘公墓表

歲 庚戌秋八月二日癸酉 有韓 崇祿大夫知內侍府事 潘公學榮 死於忠 時年七十 卜坡州 新村鄉 坤向原而歲之 今焉二十有年 尙無揭德之辭 故舊之同志者 恐其大節之晦而不章 相與揮金 斲石讀銘于 余與公 同朝而有內外之不同 未曾結識迨 癸卯孝定皇后之喪也 公爲都 辭里 余爲享官 同周施珍 駿奔之班 始與之相好者三年 自聞其死忠心 烏嗟痛愈久而愈不忘 雖不文基 何忍嘿諸 公 永今人翰林學士胥之後也 皇帝八年丁巳 始入仕 階至一品 盖其爲 人 小心謹慎 矩歷事兩朝 常倚近密 而未曾有微生目薄過性 且耿介正直 不昵紅袖 不躡權 門 雖同儕乎 若有怙寵肆志者 亦絕跡焉 凡般公規利之事 一無所願 只以薄俸 自資家人 不 免內困 而常晏如也 平生不以文學 自任然其秉心之 且制行之篤 雖齊魯大儒 豈有過此者乎 一自甲乙 王室多難 外虞內訌 大勢板蕩 公憂心如燬 無人世之戀 國制甫闕 歸差坡州田舍 及提封 旣並播告八埏

公悲憤激昂 晝夜號哭 絕粒者數日 乃作遺書 以明其罔僕之義 張于插橋之市門 遂伏劍於 道側 以成其志 烏虜烈哉 常情 莫不樂生而哀死 死成 有重於泰山者 豈非若公之謂 叔樹綠 常於萬石 爲人臣之大防 炳炳烺烺 爭日月之光 是可曰哀乎 自顧澗涘苟活者 枯項黃馘 曾 木石之若是 可日樂乎 以此言之 謂余爲死 而謂公爲生 易敢哀公 余實自哀也

己配李氏 籍全州 有子孫 繼父祖之志云 銘曰
 坡山嶽嶽 忠臣攸宅
 石有時磨 名則不泐

⑭ 통정 대부(通政大夫) : 정삼품(正三品)의 당상관(堂上官)
 ⑮ 가의 대부(嘉義大夫) : 정이품(正二品)의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고칭
 ⑯ 가선 대부(嘉善大夫) : 종이품(從二品)의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崇祿大夫知內侍府事承傳色潘公學榮之墓 貞敬夫人全州李氏 耐左
發起人

通訓 鄭基東 // 金世旭

通政 崔鳳和 // 羅世煥

通訓 河龍和 // 洪宅桂

// 李章炫 // 楊滄商

// 李時英 嘉義 崔錫斗

贊助人 嘉善 李用煥

崇祿 梁高基 通訓 李秉直

3. 의병(義兵)의 활동(活動)

한편 의병들은 국내에서 또는 조국을 떠나 만주로, 중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의병 활동은 1913년까지 소규모이며 산발적인 활동으로 7~8명의 소부대가 헌병 분소나 경찰 주재소 등을 습격 파괴하였다. 일본은 이들 의병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헌병으로 특별 수색대를 조직하여 체포, 총살, 교수형 등 모진 형벌을 가하였다. 이에 덜 수 없어 국외로 망명한 의병들은 독립군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본군의 의병 활동은 어떠하였던가. 파주 3·1 운동 기념비 사적지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 송 금종(宋今宗)

조리면 죽원리(대원리), 27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징역

○ 김 은중(金殷中)

파평면 마산리, 23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윤 치대(尹致大)

친현면, 35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5년 언도

○ 이 용현(李容鉉)

조리면 봉일천, 22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김 윤중(金潤鍾)

친현면, 43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이 대유(李大孺)

광탄면 두만리, 53세 때 의병 활동 1914년 2년 5개월 언도

○ 정 홍준(鄭弘俊)

임진면 문산리, 33세 때 헌병 보조원 오 성문(吳聖文)을 살해하고 교수형에 처해지다.

(1911년 3월 20일) (이상은 한국 독립 운동사 자료집 별책 참조)

○ 장명산(長命山) 사건

한일 합방으로 민심이 흉흉할 즈음 교하군에 초대 군수가 발령되었다. 국가가 멸망되고 국민이 울분에 차 있을 때 일제의 관원이 되었다면 친일 분자에 틀림이 없었다. 교하군민은 새로 부임하는 신 군수 윤기섭(尹夔燮)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군수를 화형(火刑)에 처하려 하였던 사건이 장명산 사건이다.

교하 김 사열(金思椈)은 동지 10여 명과 송헌섭(宋憲燮) 집에 모여서 신임 군수 윤기섭을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교하군민에게 통문을 돌렸다. 즉 『집집마다 1명씩 장작 한개씩을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라』하였다. 즉 일본 경찰이 모르게 사발 통문을 돌린 것이다. 수많은 군민이 장명산에 집결하였다. 각자 가지고 온 장작을 모아서 불을 놓고 그 위에 신임 군수를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경이 미리 탐지하고 총격을 가하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유용(柳瑢) 등이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로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겪었다. 현 생존자 유영(柳瑛)씨의 증언이다. 이 사건은 일제에 항거한 민중 봉기였다. 사료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전군민이 합심, 친일 분자인 신군수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지도자 김 사열은 1872년에 나서 1940년에 죽었는데 야동리 두문동에 묘가 있다. 1894년 진사가 되고 1896년 탁지부 주사(度支部主事—탁지부는 지금의 재무부)로 있다가 을사 보호조약 후 관직을 버리고 야동리에 돌아와서 있었다. 후에 선성 학교(宣城學校—교하 국민학교 전신)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4. 3·1 운동(運動)

1) 3·1 운동의 개요

제 1차 세계 대전 중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 주의(民族自決主義)를 주장하였다. 민족 자결 주의란 각 민족이 자기의 정치적 조직이나 또는 귀속문제(歸屬問題)를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주의로 제 1차대전 강화원칙 14개 조항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식민지와 약소 민족은 이 자결 주의에 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본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주의 이념을 밝힌 것은 1916년 5월 27일이였다. 이 이념은 당면한 어떤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본 이념으로 제창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맨 처음 큰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이였다. 1917년 노르웨이, 스웨덴 에이테 등에서 주축이 되어 14개국 약소국 동맹회의가 개최되고 한국 대표로 박 용만(朴容萬)이 참석하였다.

1918년 11월에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미한인 전체 대표자 회의(在美韓人全體代表者

會議)가 소집되고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이 승만(李承晩), 민 찬호(閔贖鎬), 정 한경(鄭翰景)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중국 상해에서 여 운형(呂運亨)의 활동으로 김 구식(金奎植)이 민족대표로 파견되었다.

한편 재일 한국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조선 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께서 밤중에 밤참을 드시고 급서하자 일언의 독살임이 밝혀져 국내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다.

이에 천도교(天道敎), 기독교, 불교 등 33인 민족대표가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因山) 때를 기하여 독립선언문을 전국, 전세계에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은 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수원의 화수리(花樹里)사건, 제암리(堤岩里)사건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3·1 운동의 피해 통계를 저들의 통계를 빌려보면,

피살자	7,645명	체포	49,811명	교회당 파괴	59//
부상자	45,562명	가옥 파괴	724호	학교 파괴	3//

등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고장 파주에서는 어떠하였던가.

2) 파주의 3·1 운동



파주군 3·1 운동 기념비 건립 위원회에서 발행한 기념비 사적지에 의거하여 3·1 운동을 알아보기로 한다.

○ 파주 3·1 운동 기념비문

여기는 파주 임진의 나무를 뒤에 지고 의주로 가는 국도의 길목이며 군사 거점이어서 옛부터 자주 건란에 휩쓸린 곳이다. 가까이 이씨 왕조에 들어서도 임진 왜난에는 왜군의 북

상과 그 퇴각의 길이 되고 추격의 명군도 벽제관(碧蹄館) 싸움에 앞서 여기에 진을 쳤고 선조 26년 9월 환가(還駕)가 임진 나무의 싸움터를 지날 때 진망장사(陣亡將士)를 제사지내게 한 곳이다. 인조 반정에 이천 부사(伊川府使) 이 중노(李重老)와 장단부사 이 서(李曙)가 군사를 이끌고 합류한 곳도 여기이고 인조 2년에 이 괄(李适)의 반군이 여기서 관군을 물리치고 남하였다. 그 5년에 금군(金軍)이 강 홍립(姜弘立)을 앞세우고 여기를 거쳐 동진했고 병자호란에 청군이 여기를 짓밟고

남하였다. 이제 6·25 사변을 겪고도 북녘의 공산군을 지호(指呼)의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니 국토 양분도 슬프거니와 이 무슨 애끓는 시련이라, 그러나 이런 역사 환경에서 우리 파주 군민의 피속에는 유달리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정신이 연면상계(連綿相繼)되어 온 것인데 1919년 기미 3·1 운동이 일어나자 군민의 끓는 피는 어찌 이를 좌시할 수 있었으랴.

우산(又山) 심 상각(沈相恪) 선생이 주도한 19인의 결사(結社)가 즉각 조직되고 군민의 동원, 그 시기의 결정, 결행, 작전의 책정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그 밀령이 왜경의 감시를 누비면서 각 면의 유지에게 전달되었으니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이 긴장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공능 시장(恭陵市場)의 장날이 거사의 그 날이었다. 운집한 5,000여명의 군중은 행동 개시의 본부 지시를 기다렸다가 지시가 내리자 일대 시위로 들어가니 독립 만세의 함성은 노도와도 같이 지축을 뒤흔들고 그 시위의 방향은 자연 봉일천 왜경 주재소로 잡고서 이중 삼중으로 포위를 좁혀 갔다. 왜경들은 떨고 당황했다. 시위가 일보 일보 다가들자 왜경은 미친듯이 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독립만세의 고향소리는 더욱 높아갔지만 공권(空拳)이 어찌 총기에 맞설 수 있었으랴, 10명의 순국자와 7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의거를 과시하거나 선전함이 없이 결허와 과묵으로

자못 성현의 몸가짐과 같이 처신했으나 후배들은 어렴풋이 이 의거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점점 망각에 가까이 잊어지려 함에 있어 우리는 이 사실을 글로 엮어서 돌에 새겨 자손 만대에 전하려 한다. 이제야 우리는 누구나 선열의 의거를 되새길 수 있고 그 정신을 본받아 향토의 보람을 드높이게 되었으니 의거의 선렬들이시어 안심하시고 고이 잠드오시라. 안심하고 고이 잠드오시라.

○ 파주 3·1 운동을 주도하신 분

심 상각(沈相恪), 김 응권(金雄權), 권 중환(權重煥), 박 우용(朴禹鏞), 백 익수(白翼洙), 심 의봉(沈宜鳳), 염 규호(廉圭鎬), 유 영(柳瑛), 윤 두영(尹斗永), 윤 홍섭(尹弘燮), 이근영(李根永), 이 남기(李南基), 이 문섭(李文燮), 이 영진(李泳震), 이 종구(李宗九), 이 학로(李學魯), 황 유현(黃裕顯), 황 병주(黃秉周), 황 학주(黃鶴周)

○ 희생하신 분

강 복산(姜福山), 김 남산(金南山), 노 동식(魯東植), 박 원선(朴元善), 안 동환(安東煥), 안 명환(安明煥), 오 준상(吳俊相), 이 남기(李南基), 정 시화(鄭時和), 최 홍주(崔弘柱)

○ 옥고(獄苦)를 당하신 분

김 동석(金東哲), 김 우중(金字中), 김 창실(金昌實), 남 동민(南東敏), 남 정채(南廷探), 염 규호(廉圭浩), 유 극로(俞極老), 유 화진(俞華鎭), 윤 홍섭(尹弘燮), 이 기하(李起河), 이 인옥(李仁玉), 이 주택(李柱宅), 임 명애(林明愛), 정 갑석(鄭甲石), 정 봉화(鄭奉和), 정천화(鄭天和), 정 영의(鄭永義), 조 무쇠(曹茂釧), 한 은동(韓殷東), 황 의동(黃義東), 황 인수(黃麟秀)

○ 한일 합방 당시 활복 자결하신 분

교하던 반 학영(潘學榮)

○ 교수형을 당하신 분

문산읍 문산리 정 홍준(鄭弘俊)

○ 한일 합방 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당하신 분

권 중삼(權重三), 김 윤중(金潤鍾), 김 은중(金殷中), 백 영현(白永鉉), 송 금종(宋今宗), 윤 치대(尹致大), 이 대유(李大儒), 이 용현(李容鉉)

○ 한일 합방 이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로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가하신 분

김 응권(金雄權), 박 찬익(朴贊翊—임시정부 내무장관), 심 상각(沈相恪), 홍 중만(洪鍾萬), 황 유현(黃裕顯), 황 병주(黃秉周)

서기 1978년 3월 1일 이승영(李崇寧) 근찬(謹撰)

○ 파주 8·1 독립 운동사

본 조사는 1977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규환(李圭煥), 이 상진(李相鎭)이 조사한 바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 공릉시장(恭陵市場)의 만세운동

「한국 독립운동」 자료집(권2, p.227)에 의거하면 1919년 3월 27일 양일간 공릉장터에서 만세를 제창하다가 피살 3명, 부상 3명을 냈다.

동서 권2, p.557에는 역시 같은 날 7명이 체포되어 1919년 6월 6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성 면	년령	징역
광탄 발랑리	조 무쇠(曹茂釧)	26세	8월
〃	이 인옥(李仁玉)	28〃	〃
〃	남 동민(南東敏)	24〃	〃
〃	정 천화(鄭天和)	31〃	〃
〃	정 갑석(鄭甲石)	26〃	〃
〃	이 기하(李起河)	22〃	〃
〃	정 봉화(鄭奉和)	28〃	〃

공릉 장날의 만세 사건은 심 상각(沈相恪)의 주도하에 김 응권(金雄權), 권 중환(權重煥), 심 의봉(沈宜鳳), 이 근영(李根永), 이 중구(李宗九), 유 영(柳瑛) 등이 주동이 되어 광탄면 발랑리에 본부를 두고 대표 19명이 모의하고 본 군내는 물론 고양군 일부까지 포함 공릉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 날 7천여명이 참가하여 만세의 대행진을 벌였으나 총상자 6명, 부상자 70여명을 내는 대참사가 벌어졌으니 총살자는 다음과 같다.

광탄면	박 원선(朴元善)	광탄면	정시화(鄭時和)
//	안 명환(安明煥)	조리면	안동환(安東煥)
//	노 동식(魯東植)	천현면	김남산(金南山)

피살자 중 특히 김 남산(金南山)은 힘이 장사였다. 부모의 묘소에서 사초를 하다가 연락을 받고, 동생 김 금산(金金山)에게 하던 일을 맡기고 태극기를 선두로 행진하다가 공릉 장에서 참살을 당했다. 이 사실을 우 중하(禹鍾河)씨, 이 규하(李圭夏)씨 및 천현면민 다수가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터이다.

○ 주내 임진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사」 권2, p.236에 1919년 3월 26일 주내면 파주리와 임진면 문산리에 3·1 운동 만세 사건이 있었다. 당시의 주동자는

이 학로(李學魯), 백 기수(白冀洙), 박 우용(朴禹鏞), 이 영진(李泳震), 황 학주(黃鶴周), 윤 홍섭(尹弘燮)

등이고, 피살자는

이 기남(李基南) : 당시 20세,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윤 홍섭(尹弘燮)·27세 징역 1년 김 정중(金定中) : 29세 징역 8월

등이다. 이는 참가자 김 완기(金完基)씨의 증언이다.

○ 교하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사」 권2, p.226에 의하면 1919년 3월 27일 청석면 다울리와 와석면 교하리에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없고 생존자 유 영(柳暎)씨에 의하면 당시 피살자는 교하면 당하리 최 홍주(崔弘柱) 25세, 오 준상(吳俊相) 24세이며 부상자는 많았다 한다.

○ 천현면 법원리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사」 권2, p.236에 의하면 천현면 법원리에 1919년 3월 29일 30일 양일간 만세운동의 기록이 남아 있다. 우 중하, 이 규하씨에 의하면 공릉장에서 피살된 김 남산(金南山)의 장례를 끝낸 후 황 유현(黃裕顯), 이 문섭(李文燮), 윤 두영(尹斗永), 황 병주(黃秉周) 등이 주동이 되어 문산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선두의 태극기수가 피살되었다 한다. 또 강 부산(姜福山)이 피살되고 황 병주(黃秉周)는 해외로 망명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황 의순(黃義順)씨가 봉사하고 있다.

○ 실형을 받은 분(한국 독립운동사 권5, p.61)

황 의동(黃義東)

주소 : 탄현면 법흥리 198

징역 : 6월

연령 : 22세, 7월 13일생

선고 : 1919년 9월 6일

직업 : 중동 중학교 2학년

남 정채(南廷彩)

주소 : 탄현면 법흥리 490

징역 : 8월

연령 : 19세, 3월 23일생

언도 : 1919년 9월 6일

직업 : 중동 중학교 2학년

이 주택(李柱宅), 한 은동(韓殷東)(장파리 이 능우, 한 재동 증언)

1919년 3월 28일 파평산 봉현동(烽峴洞)에서 만세를 주동하다가 징역 6월을 받음.

김 동석(金東哲)

3·1 운동 당시 17세로 선린 상업학교 2학년 재학 중 고향인 교하리에 와서 면 선전책(面宣賣)으로 교하면 사무소 등사판을 빌려 비밀 장소에서 통문을 인쇄하여 면 전역에 살포하여 면민 설득을 하다가 구금되어 징역 3년을 언도받고 형기 만료 후 출옥하였다. 일제하에서 항시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다가 구라파로 망명, 독일에서 철학 박사의 학위를 받고 해방 후 귀국하여 미군정청에서 무역국장을 역임하다가 6·25 동란으로 납북되어 현재 생사불명이다. 유족으로 장남에 김 춘환(金春煥)이 시흥군 서면 광명리에 살고 있다.

염 규호(廉圭浩)

3·1 운동 때 37세로 부인 임 명애(林明愛)여사와 같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 교하리에 살다가 86세로 별세하였다. 유족으로 염홍선(廉洪善)씨가 있다.

임 명애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유 화진(俞華鎭)

탄현면 법흥리 출신으로 당시 21세 선린 상업 3년생이다. 동지 7명과 같이 효창원 농적이 집에서 한달간 모임을 갖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여 독립선언문과 같이 각처로 배부하다가 구속되어 6월 징역에 2년 6월의 집해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족에 장남 유 태길(俞泰吉)이 있다.

유 극로(俞極老)

탄현면 법흥리 출신으로 19세 때 선린 상업학교 3학년 재학중 유화진과 같이 동지 7명과 태극기 수천장과 독립선언문을 배부 중 남대문 시장에서 검거되어 8월 징역 3년 집행 유예형을 받았다.

김 창실(金昌實)

교하면 교하리 왜가리골 연자매 방아간에서 주민들과 만세를 부르고 주모자로 검거되어 6월 징역을 받았다. 유족에 김 정기(金正起)씨가 있다.

정 영의(鄭永義)

아동면 금촌리 사람으로 공릉장 만세 때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총탄을 맞고 병원에서 3년 가료를 받았다. 유족에 정 원조(鄭元朝)씨가 있다. 이 순성(李舜成)씨 증언.

황 인수(黃麟秀)

교하면 동패리 사람으로 임시 정부의 요인과 접선하여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1919년 검거되어 9월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36세였고 유족은 황 원성(黃元性)씨이다.

3) 3·1 운동 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에서 1977년 파주 3·1 운동 유공자에게 포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호처 제공)

여기에서 독립 유공자 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 훈장령(勳章令)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태극 무궁화 훈장(太極無窮花勳章)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다음이 독립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 공로 훈장(建國功勞勳章)이다. 건국 공로 훈장은 3등으로 구분하는데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 등이 있고 그 아래에 포장(褒章), 다음이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이 있다. 포장과 표창은 훈장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훈격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을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다.

본군 인사로 김 남산(金南山), 노 동식(魯東植), 박 원선(朴元善), 심 상각(沈相恪), 최 홍주(崔鴻柱) 등 5인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분들의 원호처 공적 조서는 다음과 같다.

○ 김 남산(金南山)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철현면 오현리 676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1977년)
주소 : 본적과 같음. 공적 사항
운동명 : 3·1 운동

1919년 3월 27일 심 상각(沈相恪) 동지와 거사 모의, 당일, 장날을 기하여 5,000여 군중과 같이 만세 시위를 감행하다 일경(日警)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음.
(독립운동사 제 2 권 p.198 확인)

○ 노 동식(魯東植)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226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본적과 같음. 공적 사항
운동명 : 3·1 운동

1919년 3월 27일 심 상각(沈相恪), 김 웅권(金雄權)의 지휘로 월룡(月籠), 교하(交河), 가동(街洞), 조리(條里) 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여 5,000여 군중과 만세 시위를 감행, 면사무소, 주재소 등을 습격하다가 일경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독립운동사 제 2 권 p.196)

○ 박 원선(朴元善)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166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본적과 같음. 공적 사항
운동명 : 3·1 운동

1919년 3월 27일 심 상각(沈相恪), 김 진권(金鎭權) 지휘로 월릉, 교하, 가동, 조리 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여 5,000여 군중과 만세 시위를 열어, 면사무소, 주재소 등을 습격하다 일경의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음. (독립운동사 제 2권 p.198 확인)

○ 심 상각(沈相恪)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58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본적과 같음. 공적 사항

운동명 : 3·1 운동

1919년 파주군 3·1 운동 독립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 서울에서 의 거사에 뒤이어 3월 27일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파주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 봉일천으로 진격하였던 바 5,000여 군민이 주재소를 포위하여 시위하였으며 그 후 상해로 망명 임시 정부에서 약 10년간 활동하고 귀국한 후에는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하였음

○ 최 홍주(崔鴻柱)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당하리 195 포상 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본적과 같음. 공적 사항

운동명 : 3·1 운동

1919년 3월 26일 파주군 당하리(堂下里)에서 군중 700여명과 같이 만세 시위를 하며 선두에서 활약하다가 일경(日警)과 충돌,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독립운동사 제 2권 p.197 확인)

5. 3·1 운동(運動) 이후의 독립운동(獨立運動)

조선 총독부는 한국민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하여 모든 헌병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내란죄를 적용 엄법에 처하였으므로 광복운동은 표면적으로 할 수 없어 지하 운동으로 변모하여 갔다.

광복운동을 대별하면 을사보호조약 이후의 의병운동을 제승하여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 하려는 독립군(獨立軍)의 조직이고, 하나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자자의 실력을 향상시 켜므로써 일제의 기반을 벗어나려는 문화운동 등 두 가지 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군의 독립운동 인사 중에는 대동단(大同團) 사건의 최 창섭(崔昌燮), 임시정부 사건의 박 찬익(朴贊翊), 광복군의 박 영준(朴英俊), 조선어학회 사건의 정 태진(丁泰鎭) 등이 뚜렷한 인물이다. 이하 차례로 서술키로 한다.

○ 최 창섭(崔昌燮)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서침리 170 포상 훈격 : 건국 포장

주소 :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314 공적 사항

운동명 : 대동단(大同團)

1919년 조선민족 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입단하여

1920년 상해 임시 정부(上海臨時政府)로부터 군자금(軍資金) 모금지령을 받고 1차 2만원, 2차 기천원의 자금을 모금하여 상해임시 정부로 송금한 바, 그 후 체포되어 10년 징역을 수형(受刑)하였음. (원호처 공적조서 참조)

그러던 대동단이란 무엇인가 대동단은 1920년 전 협(全協), 최 익환(崔益煥) 등이 조직한 단체로 일진회(一進會)의 회원이었던 전 협과 최 익환이 귀족, 관료, 유생, 학생, 의병, 승려, 여자, 보부상(裸負商) 등 각계 각층에 수 많은 단원을 포섭하고 인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대동신문을 비밀리에 발간하였다. 한편 전 법무대신(法部大臣) 김 가진(金嘉鎭)을 고문으로 삼고 의친왕(義親王)의 승인을 얻어 선언서를 인쇄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연락하고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열국에 호소하는 길을 얻기 위하여 김가진은 먼저 상해로 출발하고 의친왕이 상복으로 가장 상해로 갈 목적으로 안동(安東)까지 갔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많은 단원이 투옥되었다. 전 협은 10년, 최 익환은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의친왕의 망명 계획에 대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 박 찬익(朴贊翊)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훈격 : 국민장

주소 : 미상 공적 사항

운동명 : 임시정부 사건

1884년 1월 2일 본군 주내면 파주리에서 명문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학문을 수학하다가 1904년 관립 상공 학교(官立商工學校)에 입학하였으나 항일 사상이 굳어 학생들간에 본격적인 항일 운동을 모의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06년 안 창호(安昌浩), 이 시영(李始榮), 이 회영(李會榮), 이 동영(李東寧), 신 채호(申采浩)등이 조직한新民회(新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4월 11일 다시 관립 공업 전습소(官立工業專習所)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그해 8월 29일 치욕의 한일 합방이 조인되니 동지 박 승익(朴勝益), 김 원근(金遠根), 조 열(趙烈), 심 권(沈權) 등과 함께 열렬히 반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모의하다가 왜경에 발각되어 탄압이 심하여지자 동년 겨울 만주의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여 북간도(北間道)에서 혁명선배인 이 상설(李相高), 백 순(白純) 등의 지도를 받는 한편 대종교(大宗教) 도유사(都有司) 라 철(羅喆)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운동 선양을 목적으로 우선 중국 관립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1912년 드디어 뜻을 이루어 중국 관현의 지원을 얻어 화룡현(和龍縣), 삼도구(三道溝), 청파동(靑坡洞) 한인 학교(韓人學校)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이때부터 다각도로 활동하였으니 때로 김 좌진(金佐鎭)장군을 접촉하면서 직접적 투쟁에 가담하였고 대종교 정교

(正敎)직을 맡아 보면서 포교에 열을 다하였다.

당시 만주에 있어서 대종교의 세력은 일취 월장하여 일경의 방해가 극심하여지고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중국 성정부(省政府)도 이를 저지코자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인 교육감의 소개로 당시의 성장(省長)이며 독군(督軍)이었던 장 작상(張作相—張作霖의 아우)를 만나 대종교 운동은 하나의 민족운동이며 곧 한국의 독립운동임을 설득하여 북간도 지구 만은 그 화를 모면하게 되었다.

1915년 중국인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되어 중국인 교육 위원회 위원에 파선되었고 성장과의 담판으로 대종교 탄압이 완화되니 일경의 주목이 심하여 북간도를 떠나 길림(吉林)으로 피하였다. 상해에서 신 규식(申圭植)과 제휴하여 중국 의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약국의 뜻있는 청년들을 지도 육성할 목적으로 동계사(同濟社)를 창립하였다. 이 때부터 북정일(溥精一)이란 중국 이름을 썼다.

1918년 신 규식과 함께 손 문(孫文)의 북벌에 참여하여 신해혁명(辛亥革味)이 성공함으로써 동맹회(同盟會)의 지도급 인사들과 가깝게 되어 중국의 여러 무관학교에 한국 청년을 입교시켜 독립군 간부양성을 기하였다.

신 규식의 비밀지령을 받아 서북간도(西北間島) 및 노령(靈嶺) 등지에 있는 독립지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국내의 3·1 독립선언은 물론이요, 동경 유학생들의 명의의 2·8 선언에 앞서 길림에서 서 일(徐一), 여 준(呂準), 김 좌진(金佐鎭), 김 동삼(金東三), 신 팔균(申八均), 황 상규(黃尙奎), 유 동열(柳東悅) 등 39인의 명의로 한국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국내 및 미국 노영(靈嶺) 동지에게 우송하고, 대한 독립 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여 곧, 파리 회의에 전문을 보내고 독립을 청원하였다.

다음 해 3월 1일 국내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동월 하순 이 동영(李東寧), 이 시영(李始榮), 조 성환(曹成煥), 조 소양(趙素昂), 김 동삼(金東三), 조 완구(趙琬九) 등 30여인의 동지들과 같이 상해로 갔다.

1919년 4월 10일 임정 의정원(臨政議政院)의원으로 피선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임정 육성에 노력하였다. 동년 4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였을 때 박 은식(朴殷植), 신 채호(申采浩), 손 정도(孫貞道), 조 성환(曹成煥) 등과 같이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출되었다.

정의단(正義團) 단장 서 일(徐一)이 1919년 8월 7일 왕청현(旺淸縣)에서 현 천묵(玄天默), 김 좌진(金佐鎭)과 대한 군정서(大韓軍政署)를 조직하여 만주에서 임시정부로 교민자치와 무장활동을 전개하자 서 일 총재, 김 좌진 총사령관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면서도 군정서의 외교처장의 중임을 맡아 임정과 군정서 사이의 외교를 전개하여 동년 12월에 대한 군정서가 임정의 산하로 들게 되어 북로군(北路軍)이라 하고 독립 운동 노선이 체계화되었다.

1921년 7월 7일 임시정부 외무부 의사 국장겸 외무 차장 대리로 외교임무를 전담하여 주로 대중 외교(對中外交)에 치중하였다.

동년 8월 임시정부의 재정이 궁핍하여지자 선생은 안 창호(安昌浩)와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조직하여 상해 및 재만(在滿) 동포들에게 군자금을 의연하도록 권하는 한편 조 소앙과 같이 중국 국민정부 요인에게 우리 독립당의 주의 강령을 설명하고 원조를 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였으며 동월 13일 태평양회의의 외교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어 태평양회의의 만국 교육대회, 세계 신문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한국 독립을 선전 활약하는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동년 중국 국민당의 손 문이 광둥에서 중국 호법정부(中國護法政府)를 수립하자 동년 11월 18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외교부장직에 있는 신 규식이 임정의 특파전사(特派專使)로 호법정부를 예방할 때 선생이 부사로 광둥에 가서 호법정부를 승인함과 동시에 호법정부로부터 임정을 정식 승인 받는 외교활동을 보좌하여 성공하자 임시정부 주광대표(駐廣代表)에 임명되고 1922년 2월 7일에 또 특과 교섭원에 임명되어 대중외교를 전담하여 활약하다가 동년 9월 9일 신 규식이 서거하자 동계사(同濟社) 이사장이 되어 한중 합작 항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 때부터 이름을 복순(僕純)이라 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 봉길(尹奉吉)의사의 의거로 일경의 체포선봉이 일자 김 구(金九)선생 및 임정 요인들을 피신시키는데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많은 협조와 편의를 얻었으며 우리 독립운동의 실적을 중국 정부에 크게 선전하여 또한 큰 효과를 얻었는데 김 구(金九)선생도 후일에 「백범일지」(白凡逸志)에서 말하고 있다.

1932년 11월 마카오(澳門)에 피신하여 있을 때 상해(上海) 동북 의용군 후원회장 왕 보진(王葆眞)이 광둥으로 가던 도중 마카오에 들린 기회에 김 구(金九), 안 공근(安恭根)과 같이 한중 협회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고 임시 정부 경제 후원회를 중한 연합 동화 의용군 대회(中韓聯合東和義勇軍大會)라 고쳐 한중 합작의 항일전을 펼 것을 정하여 본거지를 광둥에 두고 김 구, 왕 보진, 황 명당(黃明堂)을 위원으로 하여 동북 의용군의 후원기금을 모집하는데 노력하였다.

또 광둥에 있는 한국 국민당 전위총부(韓國國民黨前衛總部)를 한국 독립당 광둥지부라 개칭하여 양 명진(楊明鎭), 이 식부(李植夫)를 상무위원으로 하고 중국 국민당의 보조를 받아 기관지 「한성(韓聲)」을 발행하여 배일 원중(排日援中) 공작에 전위적 활약을 하였다.

윤 봉길 의사의 의거로 중국 조야에서 우리 임정에 대한 신망이 높아져 장 개석(蔣介石) 주석의 명을 받은 중국 국민당의 조직 부장 진과부(陳果夫)의 연락으로 1932년 5월 김 구 선생을 모시고 장 개석 주석을 남경 군관학교 구내에서 면회케 하여 한·중 양 거두의 역사적 회견에서다 음 세가지 조건을 확약하였다.

1. 한국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줄 것
2. 중국 교육기관에서 한국청년의 교육을 해줄 것
3.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자 전원과 교포를 보호할 것

이 한중 혁명의 영수회담이야말로 한중 합작 항일전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협정은

8·15 광복까지 굳게 지켜졌다.

1939년 중일전쟁 때 기강(綦江)에서 임시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었고 1940년 9월에 임정이 중경(重慶)으로 옮겨져 10월 국무위원에 피임되고, 학무, 법무, 선전, 생계(生計)등 4부(部)가 증설되자 선생은 법무 부장으로 피임되어 법제정에 진력하였다.

1944년 2월 헌법예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개선할 때 또다시 당선되어 임시 정부의 고문까지 겸하여 광복때까지 다사 다난 하였던 전시 내각의 중책을 다하였다. 8·15 광복 후 임시정부 주화 대표 단장(駐華代表團長)으로 수다한 재중 동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여 귀국하는 편의를 들보는 한편 만주에 가서 재만 동포의 재산 보호와 영주 정착의 길을 마련하여 주었으나 적군 진주로 미쳐 귀국하지 못한 백만동포가 공산 학정에 신음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29일 36년만에 귀국하여 김 구선 생의 남북 협상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숙환인 위병으로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1919년 4월 11일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모여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결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4월 17일 관제를 선포하였다. 초대 임시 의정원 의장에 이 동령(李東寧), 임시헌법 통과 후 초대 대통령에 이 승만(李承晩), 1926년에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하고 김 구(金九)가 주석(主席)이 되었다.

임시 정부에서는 국내와 연결하여 교통로의 개척, 연통제(聯通制), 공채 발행, 무관학교(武官學校)설립, 사료 편찬, 신문 발행, 파리 강화 회담에 김 구식 파견, 제 2차 세계 대전 참전 등 공이 많았다. 김 구가 주석이 된 후 이 봉창(李奉昌)의사, 윤 봉길(尹奉吉)의사 등이 일본의 침략에 뼈기를 찌으며 1945년 11월 29일 귀국하였으나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 정부의 정책은 계승되지 못하였다.

○ 박 영준(朴英俄)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포상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충현동 공적 사항
운동명 : 광복군

○1935년 절강성 가흥현(浙江省嘉興縣) 수주 중학(秀州中學)을 졸업하고 부친 박 찬익(朴贊翊)을 도와 활동하였고 특히 청년단을 조직하여 선전 공작을 하면서 임 정(臨政)과 함께 장사(長沙), 유천(柳川), 강서(江西), 귀주(貴州), 사천(泗川)으로 공작을 계속.

○1937년 10월 중앙 군관 학교(中央軍官學校) 17기로 입교 후 대위(大尉)로 서남 운수 관리처(西南運輸管理處), 서강 분처(西康分處)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光復軍總司令部總務處) 근무

○1942년 3월 중앙군 동남구 제 3전구 제 2반장(中央軍東南區, 第三戰區第二班長)으로 파견 일군 이동 사항 정찰과 징모공작(徵募工作)

○1942년 10월 광복군 총사령부 근무.

○1943년 복련, 절강, 강소, 남경, 상해(福連, 浙江, 江蘇, 南京, 上海) 등지로 파견되어 정보 수집과 학도병을 광복군으로 전환시키는 공작을 함.

○1944년 임정 재정부 이재 과장(理財課長)으로 내부 통합에 주력하면서 약산일파(若山一派)의 임정 파괴 공작 반대에 전력.

○1945년 3월 한국 광복군 3지대 1구대장 겸 3지대 훈련 총대장에 임명되어 군사 훈련, 정보 수집, 파괴 공작, 교육훈련 활동.

○1945년 8월 30일 개봉지구 군사 특파 단장에 임명되어 일군(日軍)에 있던 한적 사병(韓籍士兵)을 소집하여 국내인 군훈련(軍訓練)을 시키는 한편 교포들의 생명, 재산 보호에 노력하다.

○교포들의 국내 철수 작전이 끝나자 다시 임정의 명령으로 임정 주화 대표단(臨政駐華代表團) 동북 변사처(東北辦事處)(처장 이 광—處長 李光)의 외무주임(外務主任)에 임명되어 200만 만주 교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 활동.

심양(瀋陽)에서 자위군 4개 대대를 조직 편성하여 대공항쟁을 기도하던 중에 김 구의 남북협상설이 전하여지자 귀국하였다.

○ 광복군(光復軍)

광복군과 독립군은 각각 조직이 다르다. 혼돈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먼저 독립군을 설명하고 다음에 광복군을 설명하기로 한다.

독립군은 1910년 이후 해외로 망명한 우국지사들이 본래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해주, 만주(특히 간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았다. 이 시영(李始榮), 이 회영(李會榮) 등 형제가 통화현 합니하(通化縣哈泥河)에 신홍 강습소(신홍 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고 병농제(兵農制)를 써서 농사와 군사 훈련을 겸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신홍 무관 학교(新興武官學校)라 개칭하고 1920년까지 2,1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외에 많은 독립 단체가 조직되었고 특히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의 독립군은 청산리(靑山里) 싸움에서 대승하였다. 그 후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하여 1921년 1월에 러시아 「이만」으로 이동하였으나 러시아의 무장해제로 만주로 돌아왔으나 발부칠 곳이 없어졌다.

이 때 1940년 9월 상해 임시 정부에서 독립군을 흡수하여 광복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중국군과 같이 전투하게 되었다.

○ 정 태진(丁泰鎭)(1903~1952)

본적 : 금촌읍 금능리 406번지 사건명 : 한글 학회

훈격 : 건국공로훈장 단장(국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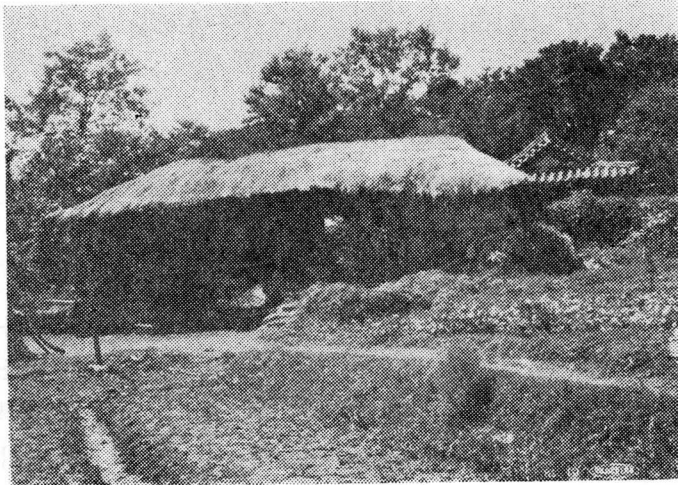
경력 : 교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경기 중학교, 연희 전문학교를 금능리에서 기차통학을 하였다.

1927년 도미(渡美)하여 우스타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을 마쳤다. 함흥 영생(永生) 여자 고등 보통학교(여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194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한글사전 편찬위원이 되었다. 1942년 한글 학회(朝鮮語學會) 사건이 일어나자 체포되어(함흥 형무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8·15 해방으로 석방되어 다시 한글 학회에서 한글 사전 편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가 발발하자 부산에서 계속 편찬사업을 하다가 수북이 되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4권까지 교정을 마치고 식량난으로 고향인 파주로 돌아왔다가 일산 역전에서 타고 갔던 군 추력이 전복되어 1952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 묘소는 본가 뒷산 선영(先塋) 아래에 모셨다. (서원동—書院洞)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백인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우대하는 성의 표시로 교문을 열어 주어 선생을 먼저 통과케 하였다.

또 해방 후 미군정청에 외무부 장관으로 공화국이 건립된 후 문교 장관으로 초빙하였으나

모두 불응하고 연세대의 교수로 있으면서 한글사전 편찬에 전념하였다.



丁泰鎮 生家

저서(著書)에는 「조선 고어방언 사전」, 「고어 독본」, 「국어학 개론」 등이 있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 훈장 단장(국민장)을 받았고 유족으로 동덕 여자 대학장 정 해동(丁海東)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 조선어학회 사건

일본어 사용과 국어 말살을

피하던 일제가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회원을 적로 몰아 검거 투옥한 사건.

일본은 1939년 4월부터 학교의 국어 과목을 전폐하고 각 신문, 잡지를 점차 폐간하였다.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여 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 일본은 내부의 반항을 염려하여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에도 검거의 손을 대었다. 처음에는 정 태진(丁泰鎮)을 『함흥 학생사전』의 증인으로 불러 가더니 10월 1일에 이 윤재(李允宰), 최 현배(崔鉉培), 이희승(李熙昇), 정 인승(鄭寅承), 김 윤경(金允經), 권 승욱(權承昱), 장 지영(張志暎), 한징(韓澄), 이 중화, 이 석린(李錫麟), 이 고루, 21일에는 이 강래, 김 선기(金善琪), 이 병기(李秉岐), 이 야자, 정 백수, 김 법린(金法麟), 이 우식, 23일에는 윤 병호, 서 승효, 김 양수, 장 현식, 이 인(李仁), 이 은상(李殷相), 정 인섭(鄭寅燮), 안 재홍(安在鴻) 등을 검거하였다. 이듬해 초에는 김 도연(金度演), 서 민호(徐民濠)를 검거 그 달 말부터 4월 1일까지

신 윤국, 김 중철이 불구속으로 심문을 받았고, 또 권 덕규(權德奎), 안 호상(安浩相)은 병중이어서 잡히지 않았다. 홍원(洪原)으로 끌려간 여러 인사들은 1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온갖 야만적 악형을 받았고,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함흥(咸興) 검사국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 밖에도 혐의자, 증인 등으로 심문을 당한 사람이 50여명에 달하였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아니한다고 꼭 상훈(郭尙勳), 김 두백을 유치장에 구금한 일도 있었으나 이들 증인 중에서는 어학회 사업을 협조, 협력한 저명한 문화인들이 많았다.

함흥 검사국에서는 범위 축소 지시에 좇음인지 모르나 어학회 관계자를 다시 조사하여 대부분은 내어 놓고 이 윤재, 한 징, 최 현배, 이 희승, 정 배진, 이 고무, 김 양수, 김 도연, 이 중화, 김 법린, 이 인, 정 현식 등 13명만 공판에 붙이었다. 1943년 12월 이 윤재가, 이듬해 2월에 한 징이 각각 심한 고문과 추위와 주립에 못이기에 옥사하였다. 그 나머지 11명은 함흥 지방재판소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까지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중 정 배진만은 복역함이 더 빠르겠다고 하여 복역을 마쳤고 장 형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체형을 받은 이는 공소하였으나 8·15 해방을 이틀 앞두고 공소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어학회는 해산되고 국어사전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으로 끌려 다니다가 여러 부분의 원고가 없어지게 되었다.

—국사대 사전에서—

본군 독립유공자 일람표

성	명	사	건	명	훈	격	본	적	지
1.	鄭 用 大	義兵			國民章		적성면		
2.	慶 賢 秀	"			大統領表彰		"		
3.	金 南 山	三·一運動			"		천현면 오현리	676	
4.	魯 東 植	"			"		광탄면 신산리	226	
5.	朴 元 善	"			"		"	166	
6.	沈 相 恪	"			"		"	58	
7.	崔 鴻 柱	"			"		교하면 당하리	195	
8.	崔 昌 燮	大同團			建國褒章		교하면 서청리	170	
9.	朴 贊 翊	臨時政府			國民章		주내면 파주리		
10.	朴 英 俊	光復軍			大統領表彰		"		
11.	丁 泰 鎮	朝鮮語學會			國民章		금촌읍 금룡리	406	